

전남지방우정청 '예향남도 100만 편지쓰기' 11월9일까지



21일 광주시 동구 광주우체국 2층에서 열린 '2013 예향남도 100만 편지쓰기'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편지길·소망길'에 엽서를 걸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가을엔 ♥ 편지를...”

광주시 동구 광주우체국 2층. 플라시도 도망고와 존 덴버가 노래한 '퍼haps 러브(Perhaps Love)'가 전남우체국사람들 합창단의 목소리로 울려 퍼진다.

“사랑은 당신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 존재해요/당신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당신이 가장 외로울 때/사랑에 대한 추억은 당신을 안식처로 안내할 거예요”

국화향기 그윽한 실내를 가득 채운 200여명의 시민들은 지그시 눈을 감은 채 감미로운 노래에 귀를 기울이며 시나브로 다가온 가을을 발견한다.

“우다방”이라는 이름이 더 친숙한 광주우체국에서는 지난 21일 ‘2013 예향남도 100만 편지쓰기’ 개막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황규승씨의 통기타 연주를 시작으로 추진위원 위촉장 수여, 공로패 수여, 한승민 작가 특강, 편지 낭송, 참석자 합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병수 전남지방우정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스마트기기가 발달해 SNS로 신속하게 소통하고 있지만 정작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불통을 느끼고 있다”며 “편지 받을 사람을 생각하며 글씨를 쓰

편지 받을 사람 생각하며 손글씨로 또박또박 우표 붙이는 정성까지

광주여교 교사 안민영씨는 친구에게 전하는 편지를 낭송하며 가을의 정취를 더했다.

“열린 창으로 날아들던 환율환 꽃향기도 결국 일주일 만에 절정이 끝났구나. 향기에 취해 힘겨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지. 그런데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서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었던 편지 덕분이란 생각이 드는구나. 지금은 서로 떨어져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편지를 통해 서로의 안녕을 빌어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우다방 곳곳에는 ‘예향남도 100만 편지쓰기’ 행사를 응원하는 엽서들로 가득 채워졌다. 2층으로 오르는 평범한 계단은 ‘편지길·소망길’이란 뜻깊이 붙었다. 손으로 꼭

꼭 눌러 쓴 작은 엽서에는 지나가 버린 청춘에 대한 아련함과 편지에 대한 향수를 담은 글귀들이 행사장을 찾은 이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전남지방우정청은 광주·전남 22개 시군의 아름다운 풍광과 문예인들의 시어를 담은 그림엽서를 제작해 나눠줘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광주·전남 지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편지봉투 뒷부분에 사랑의 하트(♥)를 표시하고 보내면 된다.

가장 많은 편지를 쓴 단체 중 추천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광주시장상, 전남도지사상, 광주·전남 교육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2013 예향남도 100만 편지쓰기’는 2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9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지난해 처음 열린 ‘예향남도 100만 편지쓰기’에는 43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는 우리나라 편지쓰기 사상 최대 기록이다.

전남지방우정청은 올해 이미 1400여 개 기관에서 55만여 명이 참가를 신청해 참여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순천만정원박람회 유료관객 87.7%... 164억 흑자

관람객 440만명... 외국인 17만명 다녀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찾은 외국 관람객이 17만명에 달하고 운영비 대비, 수익은 164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원박람회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20일 폐막한 이번 박람회는 6개월간의 전시기간 동안 총 누적관객은

440만3890명으로 목표치를 110% 초과 달성했다. 1일 최대 관객은 지난 9월 20일 10만3342명, 최소 관객은 7월 3일 3764명, 1일 평균 관객은 2만3934명이었다.

부지 조성 비용 등을 제외한 박람회장 운영·문화행사 준비에만 350억

원이 지출됐고, 수입은 514억원(입장료 391억원, 매점 등 임대수입 21억원, 휘장 등 사업수입 37억원, 기타 65억원)으로 164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조직위는 밝혔다.

유·무료 관객 비율은 유료 87.7%(386만명), 무료 12.3%(54만명)로 다른 지역 행사인 2013 진안웰빙엑스포 63%, 2012 고성공룡엑스포 64%,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47% 등에 비해 유료 관객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외국인 관객은 전체의 4%(17만명)로 국적은 61개국으로, 국가별로는 중국(55%), 일본(8%), 미국(6%) 등의 순위였다. 관람객 만족도는 86%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순천=김은홍기자 ejkim@

광주세계아리랑축전, 내년엔 5월 개최 검토 공연확대·예산확보 고려 추진

광주시가 내년부터 광주세계아리랑축전의 개최시기를 5월로 앞당기고, 공연 규모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개최시점이 내년 6·4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데다, 복지비 증가 등으로 소모성 축제 예산을 줄이는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세계아리랑축전 주제공연 성격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연관이 있어 축전을 5월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내년부터 5월 개최를 검토 중이다. 아리랑 축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월에 열렸다.

시는 5월 개최가 확정될 경우 5·18 행사주간에 개최할 것인지, 행사주기간후에 개최할 것인지 등을 올해 축전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는 내달 초께 관련 회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다만,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또 올해 축전 주제공연(2회)으로 각광을 받았던 ‘빛골아리랑’을 내년에는 5회 이상 공연으로 확대하고, 대하로 등 서울공연을 개최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주제 공연이 확대될 경우 총 예산이 올해 9억원(국비 5억원, 시비 4억원)보다 추가로 1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제공연의 성격이 5·18과 연관이 깊어 시기적으로 5월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면서도 “내년에는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 등을 검토해 5월 개최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며, 공연 확대도 예산 확보를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광주시,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시의 ‘주민과 함께 밝고 환하게 웃는 동네 만들기’ 사업이 2013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대통령상)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은 일상생활공간을 주민들이 쾌적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데 기여한 단체와 지지단체에 수여한다.

‘주민과 함께 밝고 환하게 웃는 동네 만들기(사진)’는 계림동 금수장 뒷편 푸른길 공원 인근 노후 주거지와 버려진 땅에 생명력을 불어 넣었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2년동안 계림동 푸른길 주변 노후 주택의 담장 등을 허물고, 빈터에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또, 푸른길 공원과 동네

사이에 막혀있는 벽을 뚫어 골목길과 연결하는 공간 통로도 만들었다. 이 사업은 광주시와 주민이 함께하는 경관 취약지 개선사업이다.

광주시는 2009년부터 북구 운암동 광주예술고등학교 옥벽, 북구 오치동 삼골다리 옛 머구재 쉼터,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정문 앞 등 경관 취약지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강진영 광주시 도시경관 담당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유지에 쉼터를 조성하고 재능 기부를 통해 담장을 꾸미는 등 주민과 함께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공모 취지와 일치해 높은 평가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알림

제84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5일 오전 11시, 5동 1층 강당
전병조 교수 ‘급성 중독환자의 올바른 처치와 이해’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올바른 처치와 이해”라는 주제로 오는 25일 제84회 테마가 있는 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 의료진이 직접 나서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급성 중독환자의

- 주 제: ‘급성 중독환자의 올바른 처치와 이해’
- 강 사: 전병조 응급의학과 교수



- 대한응급의학회
- 대한중독학회
- 대한의상학회
- 삼남응급의학회
- 미국응급의학회
- 광주소방학교 외래교수
- 광주시 자살예방위원회 위원

- 일 시: 10월 25일(금) 오전 11시
- 장 소: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 문 의: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0-5092
- 교육연구실(062)220-608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기술, 고주파 지방분해 기술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 금남로 ● 계림동 ● 대한생명 ● 구.한미쇼핑 ● 동부소방서 ● **북경당 한의원**

진료문의 062)227-7575
*대형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결과 제080130-광-26%요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엔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글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03 (주)유엔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AU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상위 1899-3975 H.P 010-3598-7080

편백경침검용 발목펌프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들을 완전 해결 시켜줍니다.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편백경침검용 발목펌프는 당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펌프★

- ▶ 편백 경침 검용 [음성카운터](아파트용) 60,000원
- ▶ 편백 경침 검용 [음성카운터](주택용) 50,000원
- ▶ 편백 경침 검용 발목펌프(아파트용) 40,000원
- ▶ 편백 경침 검용 발목펌프(주택용) 30,000원

제일건강 | 문의전화: 010-7510-2000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